SEOUL ECONOMIC BULLETIN

경제동향

요 약

생 산 제조업지수/재고지수

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

고 용 경제활동인구/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
물 가 소비자물가/ 신선식품

곽지원 연구원(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)

부동산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

금 융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용보증재단

수출입 수출입액/수출입 품목/국가별 품목

이소은 연구원(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)

생산

- 서울의 5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2.4로 전년동월대비 5.8% 감소
- 5월 제조업 출하·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9.5%, 0.2% 감소하여 경기수축기

소비

-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,945억원으로 전국(3조7,225억원)의 30.8%를 차지
- 5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.0% 증가, 대형마트는 1.5% 감소

고용

- 서울의 5월 취업자수는 511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(0.0%)이 감소
- 서울의 5월 고용률은 59.9%로 전년동월대비 0.8%p 감소, 실업률은 4.3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증가

물가

- 2013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.6(2010년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1.2% 상승

부동산

-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은 강북지역 특히 용산구와 성북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.07% 하락
-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.15% 상승하며 9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

금융

- 서울의 5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6조 5,391억 원으로 전월대비 0.1% 증가, 그중 가계대출은 175조 3,908억 원으로 전월대비 0.4% 증가
- 서울의 5월 신설법인수는 2,140개로 건설·설비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.0% 증가
- 서울의 5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0.2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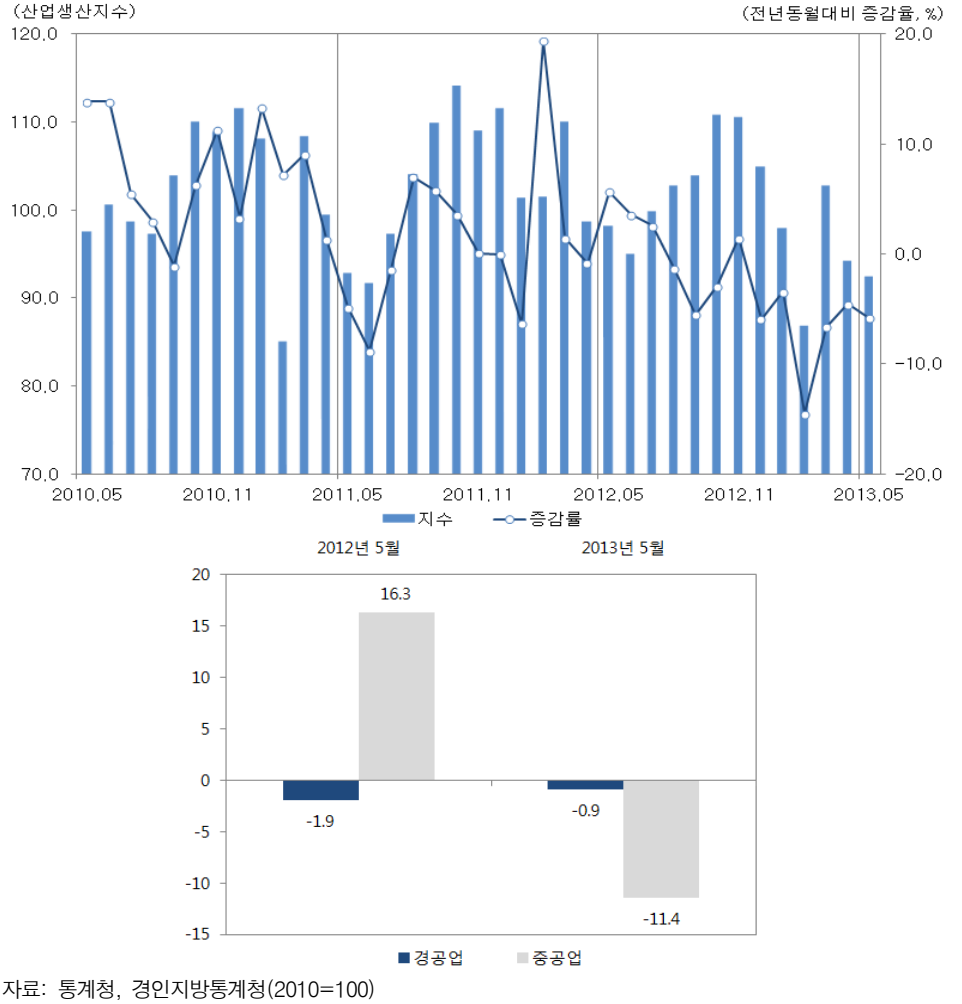
수출입

- 서울의 5월 수출은 53.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8.5% 증가,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- 서울의 5월 수입은 100.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.7% 증가, 품목별로는 반도체, 국가별로는 역시 중국이 1순위 차지

Ⅰ 생·산 Ⅰ

■ 서울의 5월 제조업생산지수 92.4(2010=100)로 전년동월대비 5.8% 감소

- 경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.9% 감소, 중공업부문은 11.4% 감소
- 전년동월대비 섬유제품(26.2%), 금속가공(16.7%), 전기·가스·증기업(6.3%) 증가, 기계장비(-30.9%)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음향통신(-9.9%), 의복 및 모피(-4.6%) 각각 감소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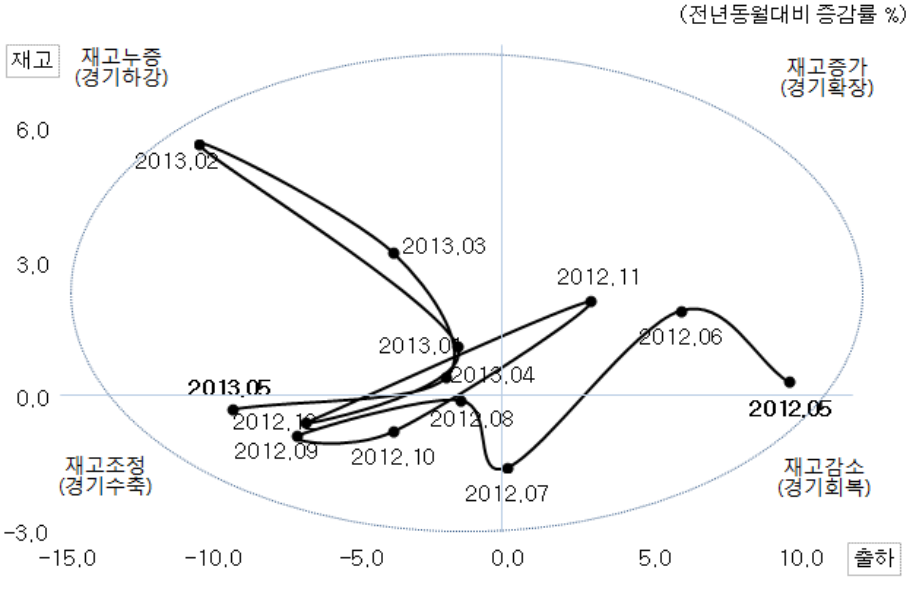
| 출하 · 재고 순환 |

■ 서울의 5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, 재고 감소로 경기수축기

- 서울의 5월 출하지수는 91.0(2010=100.0)으로 전년동월대비 9.5% 감소
- 서울의 5월 재고지수는 102.3(2010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0.2% 감소
- 출하, 재고 모두 감소하여 경기수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(<Box> 참조)

〈참고〉 출하·재고 순환 상관표

경기수축기	경기회복기	경기확장기	경기하강기
출하↓	출하↑	출하↑	출하↓
재고↓	재고↓	재고↑	재고↑
재고조정	재고감소	의도된 재고증가	재고누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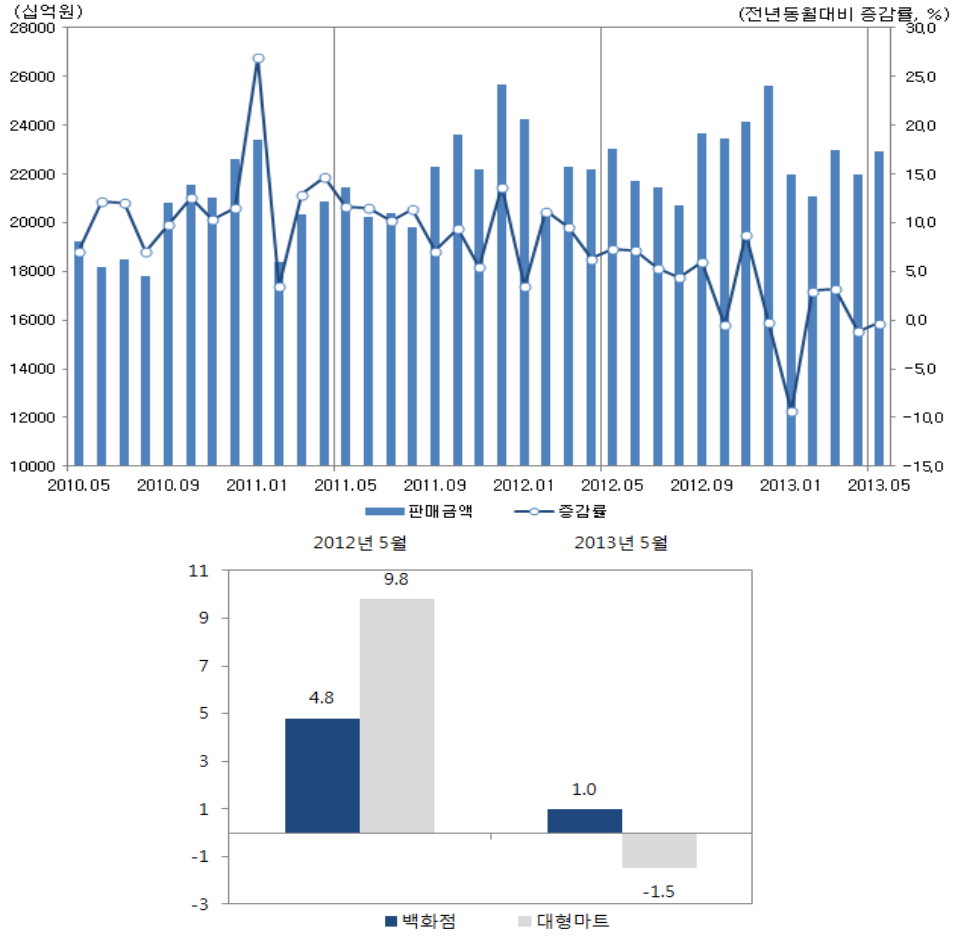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| 소·비 |

■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0.3% 감소

-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,945억원으로 전국(3조7,225억원)의 30.8%를 차지
- 백화점 판매액은 1조1,495억원으로 전국(2조5,549억원)의 45.0%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1,450억원으로 전국(3조7,225억원)의 30.8%를 차지
-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8.4로 전년동월대비 2.1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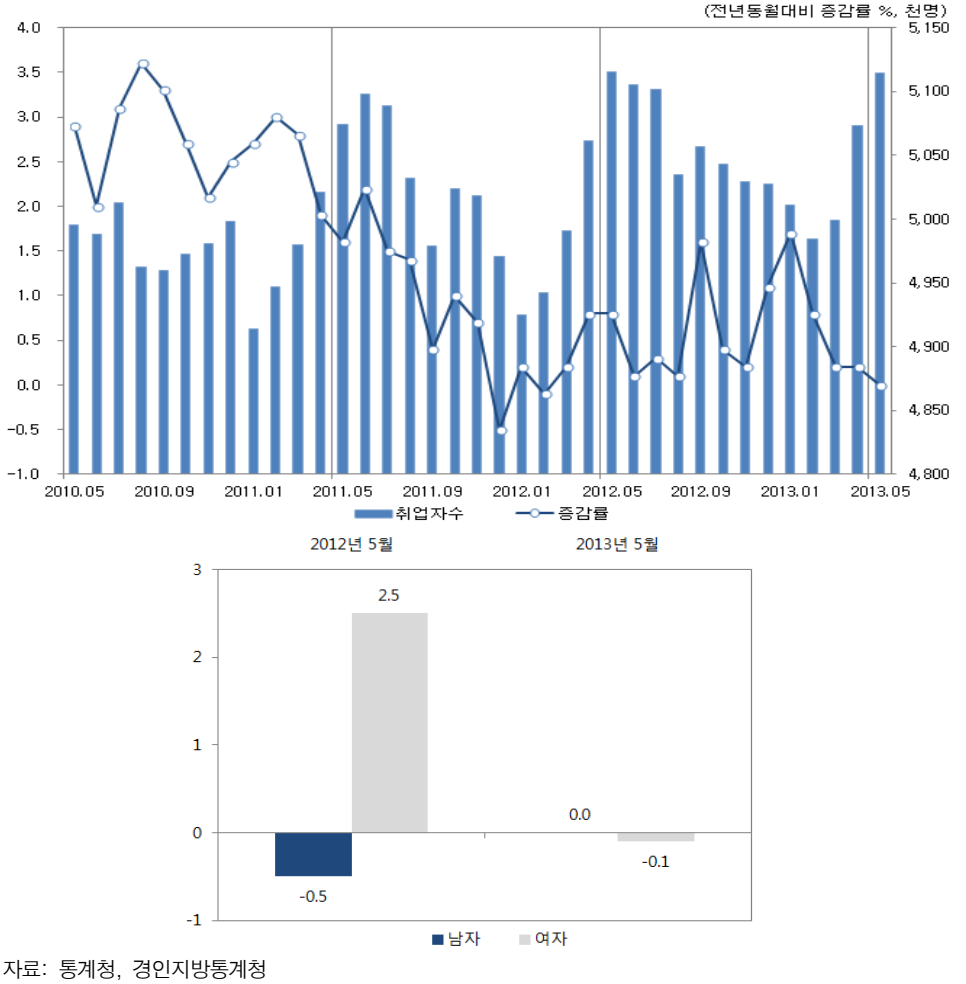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

| 취·업·자 |

■ 서울의 5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보합세

- 서울의 5월 취업자는 511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(0.0%)이 감소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85만7천명, 여자는 225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천명(0.0%)증가, 여자는 2천명(-0.1%) 감소
- 산업별로 보면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이 7만4천명(9.2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이 3만3천명(1.6%) 각각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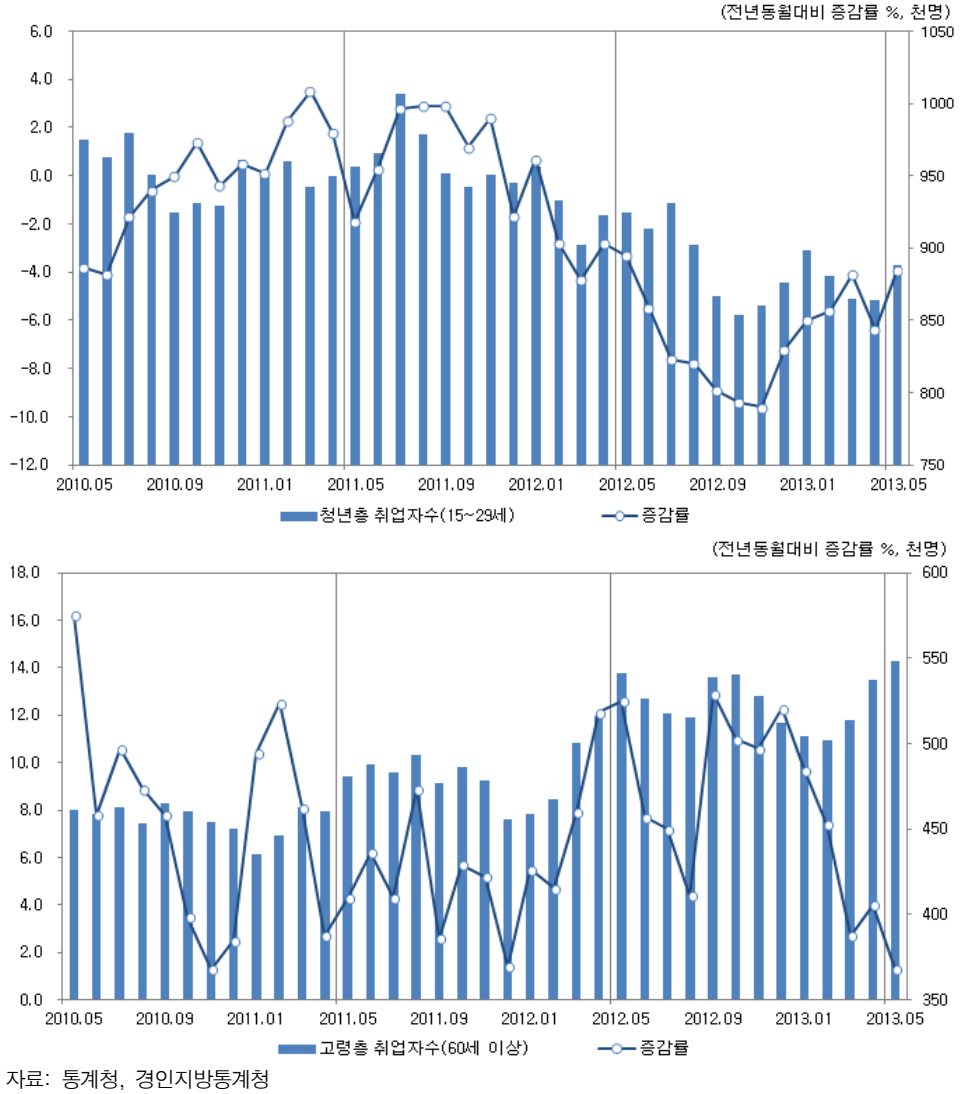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

■ 서울의 5월 청년층(15세~29세) 여전히 하락,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꾸준히 증가

- 서울의 5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는 88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.9% 감소하며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
- 서울의 5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5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.3%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
-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완화, 고령층 취업자 증가폭은 감소 추세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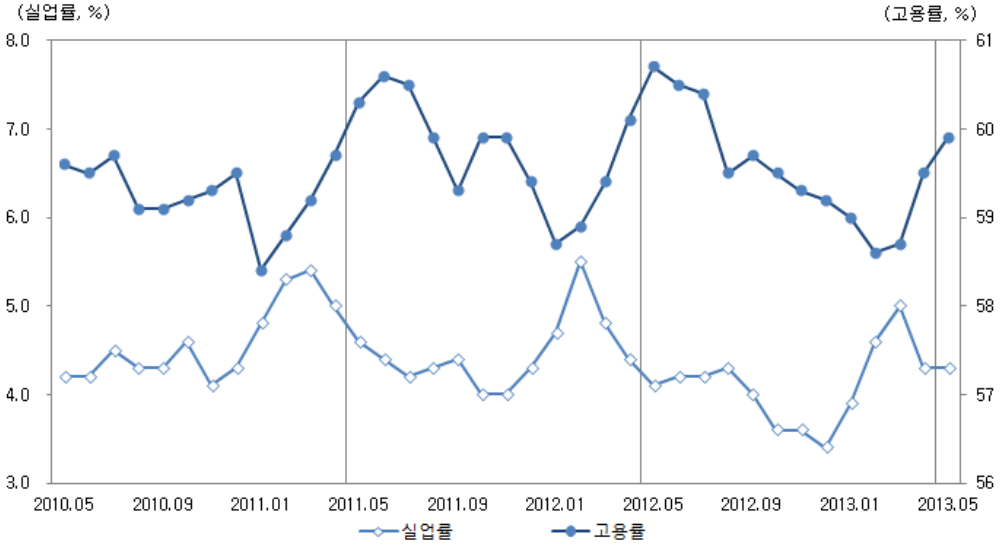
| 고·용·률·및·실·업·률 |

■ 서울의 5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, 전국대비 낮은 수준

- 서울의 5월 고용률은 59.9%로 전년동월대비 0.8%p 감소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69.7%로 전년동월대비 0.5%p 감소, 여자는 50.9%로 0.9%p 감소
- 2013년 5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(60.4%)에 비해 0.5%p 낮은 수준

■ 서울의 5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, 전국대비 높은 수준

- 서울의 5월 실업자는 22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천명(5.9%)이 증가
- 실업률은 4.3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증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4%로 전년동월대비 보합, 여자는 4.2%로 0.6%p 증가
- 2013년 5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3.0%)에 비하여 1.3%p 높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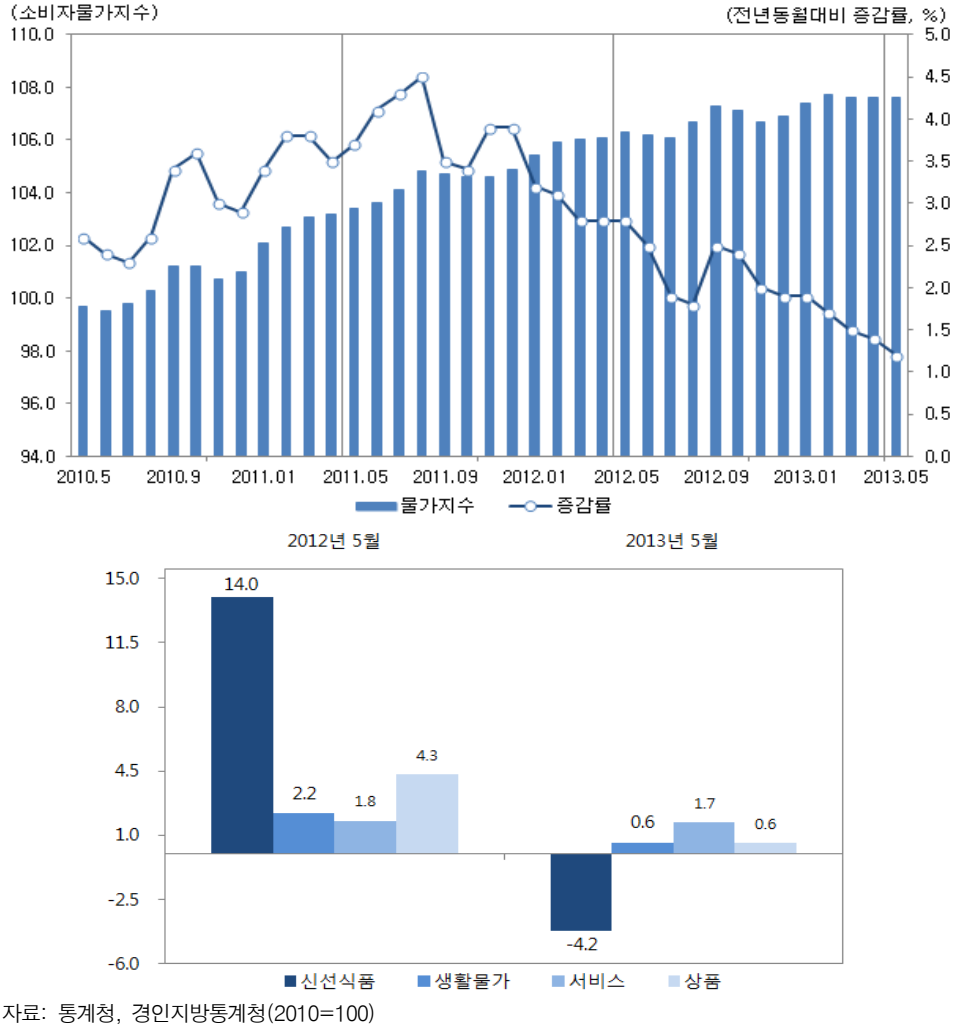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| 물·가 |

■ 서울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2013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.6(2010년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1.2% 상승
-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농축수산물(-2.9%), 신선식품지수(-4.2%)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업제품(0.4%), 전기·수도·가스(6.5%), 집세를 포함한 서비스(1.7%), 생활물가지수(0.6%) 부문은 상승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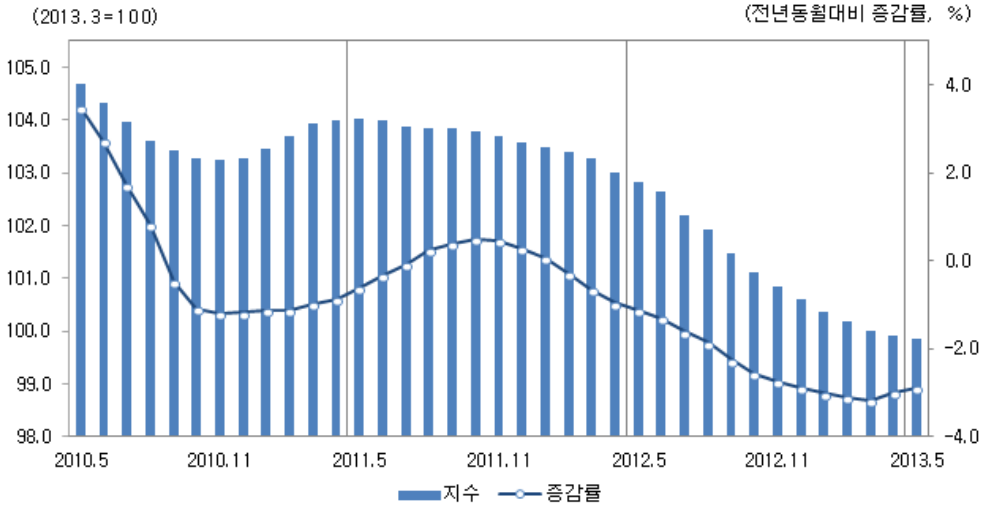
| 주·택·매·매·가·격 |

■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.07% 하락

- 강남지역(0.01%), 강북지역(-0.15%) 등 금천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하락
  · 하락률 상위지역: 용산구(-0.74%), 성북구(-0.25%), 동작구(-0.12%), 강서구(-0.09%)
- 단독주택(-0.04%), 연립주택(-0.13%), 아파트(-0.05%) 등 하락세 지속

■ 전국의 5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.01% 하락

- 광역시(0.20%), 기타지방(0.08%) 모두 전월대비 상승, 수도권(-0.15%)은 하락세 지속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〈그림〉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■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,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

- 평당 매매가격(평균 1,640만원)은 전월(1,642만원)대비 0.2% 하락
- 매매거래건수(6,843건)는 전월(5,807건) 대비 17.8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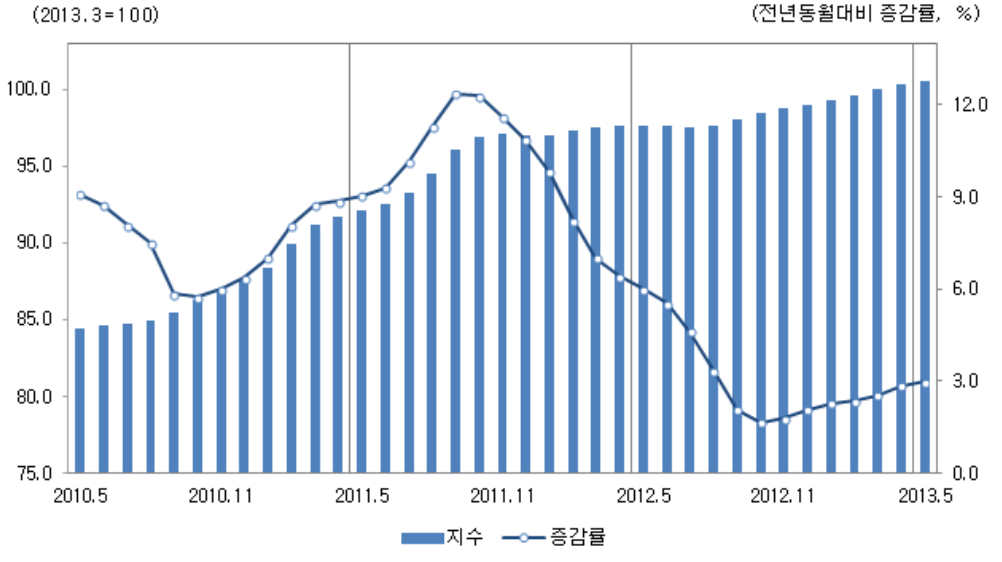
| 주·택·전·세·가·격 |

■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.15% 상승

- 강남지역(0.18%), 강북지역(0.13%) 등 성북구, 노원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
  · 상승률 상위지역: 서대문구(0.54%), 성동구(0.48%), 관악구(0.4%), 영등포구(0.28%)
- 단독주택(0.2%), 연립주택(0.4%), 아파트(0.5%) 등 상승세 지속

■ 전국의 5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.19% 상승

- 광역시(0.22%), 기타지방(0.16%), 수도권(0.18%) 모두 전월대비 상승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〈그림〉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■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,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

- 평당 전세가격(평균 889만원)은 전월(882만원)대비 0.8% 증가
- 전세거래건수(7,674)는 전월(9,902건) 대비 22.5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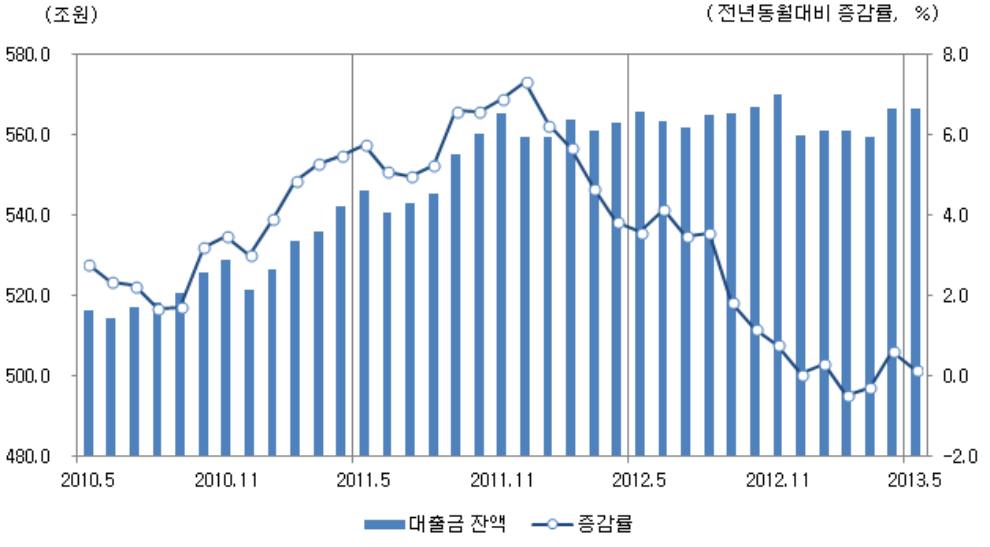
| 가·계·대·출 |

■ 5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

- 전체 대출금 잔액(566조 5,391억원)은 전월(566조 4,677억원)대비 0.01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455조 9,592억원)과 비예금은행(110조 5,799억원)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.2% 감소, 1.5% 증가

■ 5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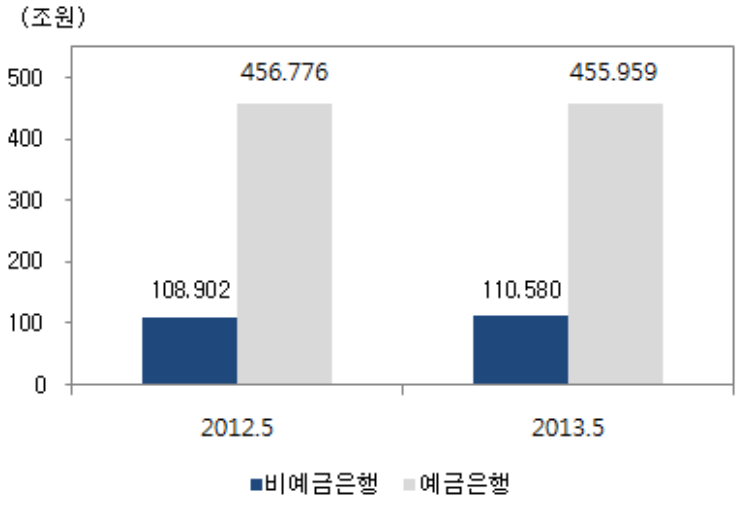
- 전체 대출금 잔액(1,471조 1,090억원)은 전월(1,466조 974억원)대비 0.34% 증가



주 :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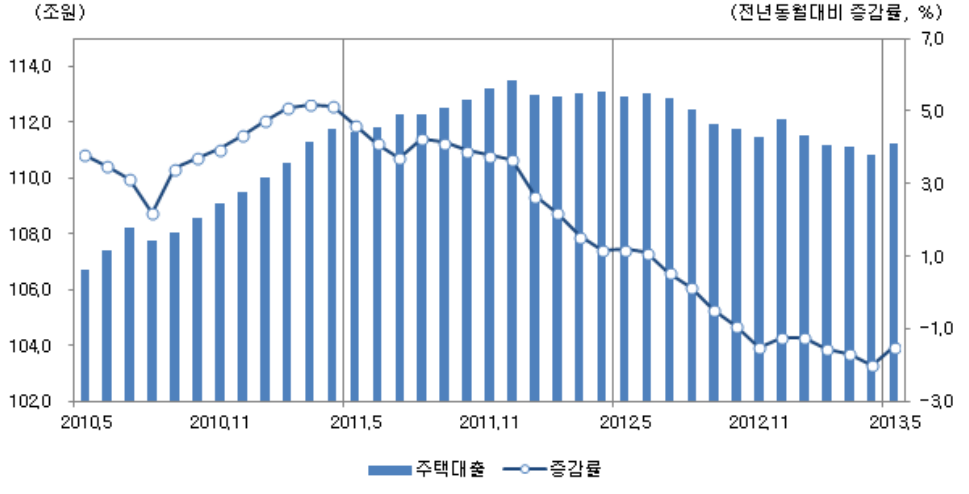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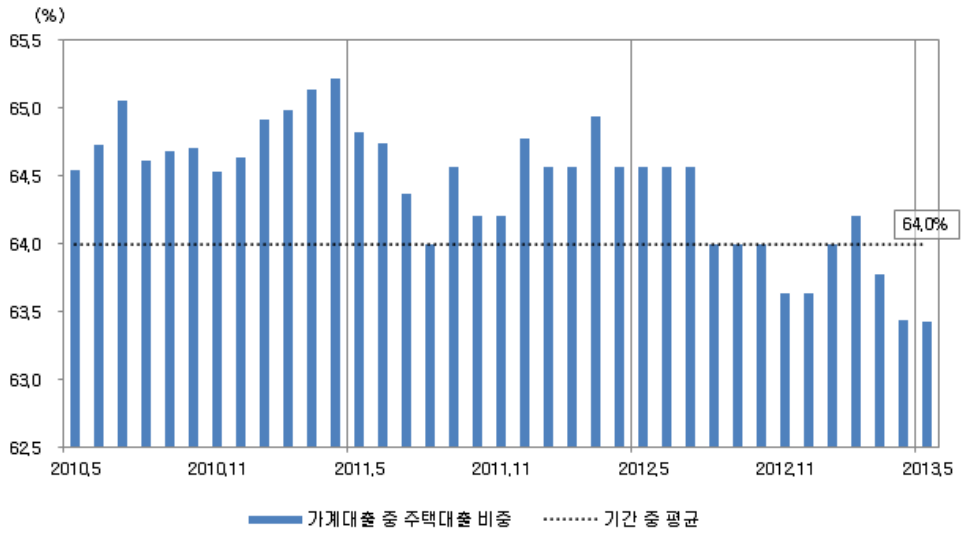
■ 5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감소

- 은행 가계대출(175조 3,908억원)은 전월(174조 6,373억원)대비 0.4% 증가
- 그 중 주택대출(111조 2,492억원)은 전년동월대비 1.5% 감소



주 :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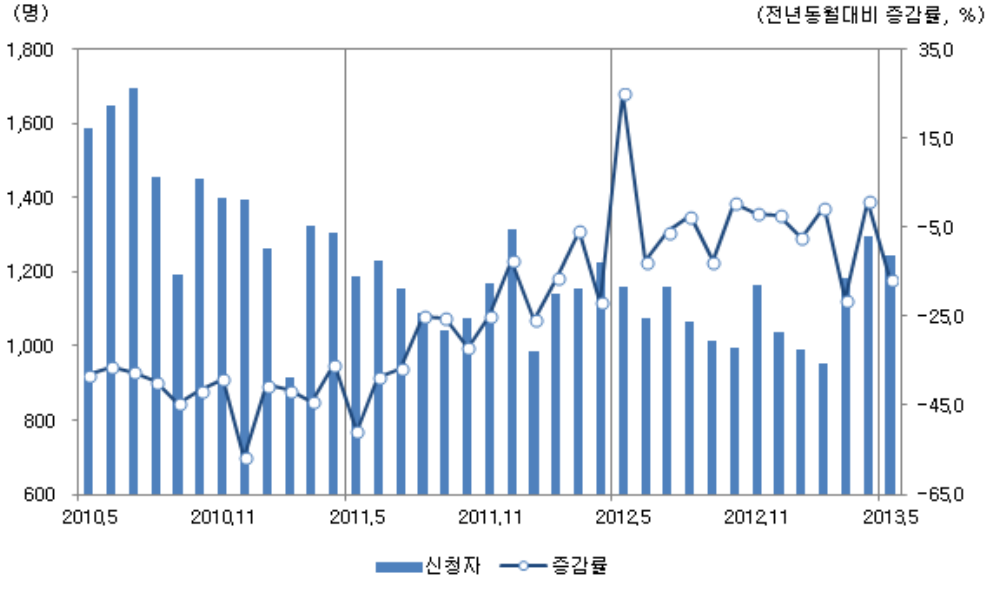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■ 5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

- 개인파산 신청자(1,244명)은 전월대비 4.0% 감소, 전년동월대비 7.3% 증가
-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(1.6%)은 전년동월대비 81.8%p 감소, 면책 기각률(2.1%)은 전년동월대비 84.6%p 감소



자료 : 대법원

〈그림〉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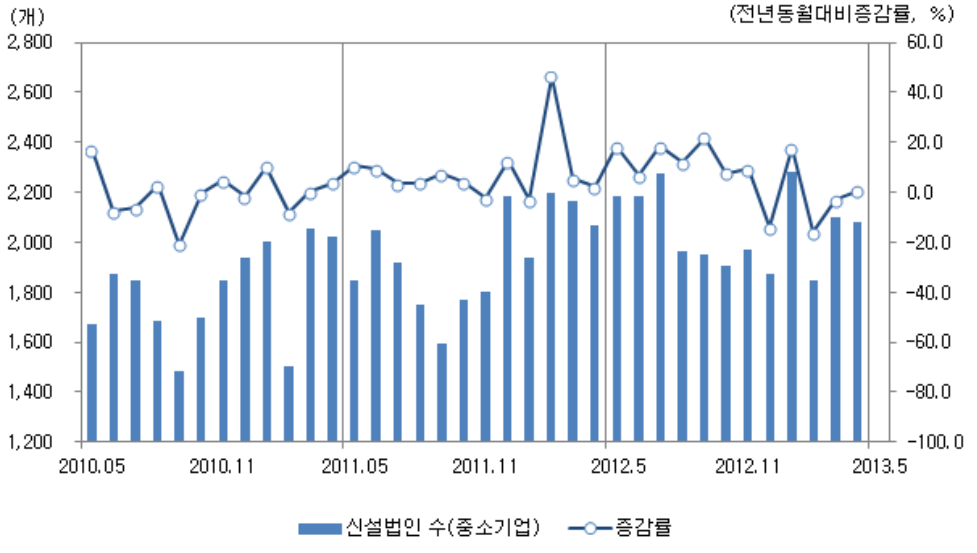
| 신·설·부·도·법·인 |

■ 서울의 5월 신설법인 수 건설 및 설비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

-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,140개로 전월대비 3.0%(62개) 증가, 전년동월대비 2.1%(46개) 감소
-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9.3%(11개) 증가하였고,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0.7%(2개), 3.1%(51개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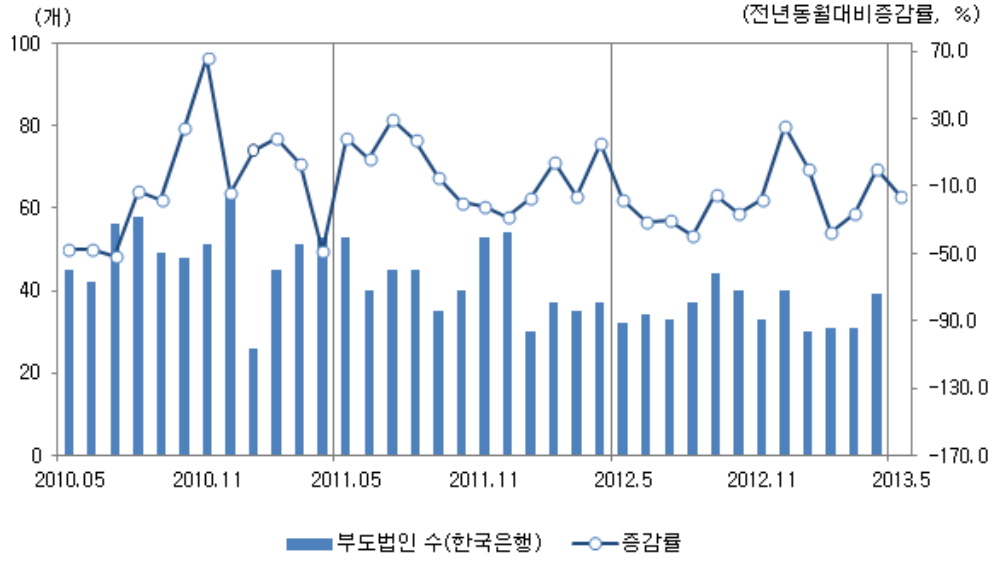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5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

-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29개로 전월대비 25.6%(10개) 감소, 전년동월대비 9.4%(3개) 감소
-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월대비 37.5%(6개) 감소,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각각 12.5%(2개), 40.0%(2개)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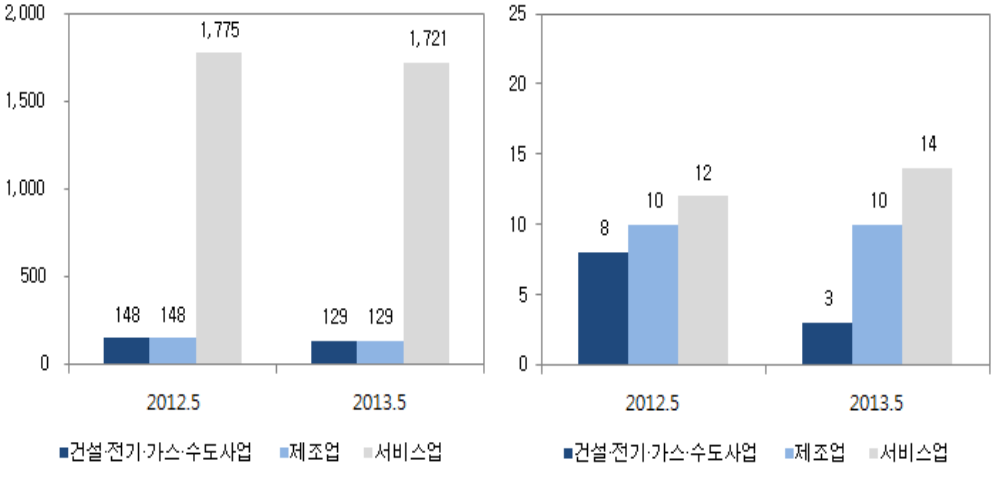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

〈그림〉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

자료 : 중소기업청

〈그림〉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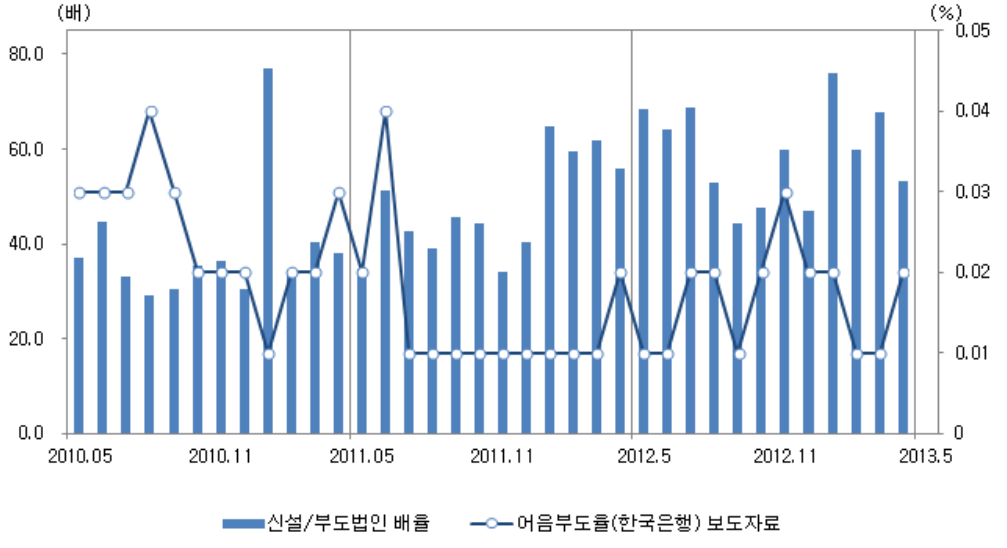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중소기업청

〈그림〉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 현황

■ 5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

- 5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.02%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/부도법인 배율은 73.8배로 전월(53.3배)보다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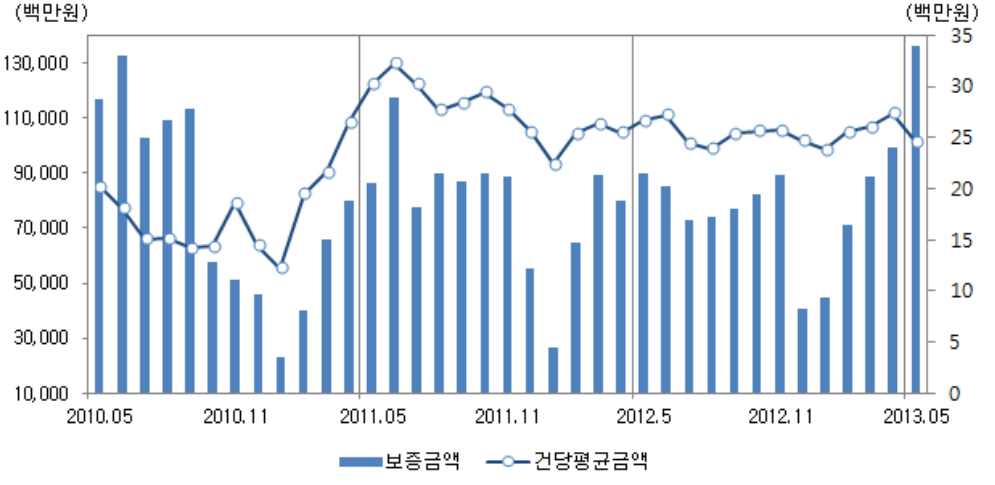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,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/부도법인 배율 동향

| 신·용·보·증·동·향 |

■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증가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35,870백만원, 5,531건
  ·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37.3%, 53.0% 증가,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0.2% 감소
-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51.7%, 64.6% 증가하였고,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7.7% 감소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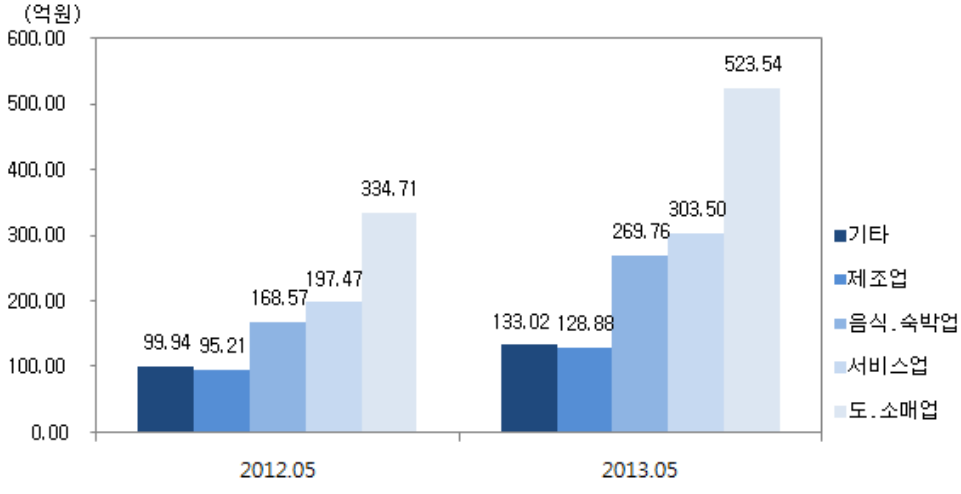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

■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증가

- 5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9.5%로 전월(9.1%) 대비 0.4%p 증가한 반면, 도·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8.5%로 전월(36.8%) 대비 1.7%p 증가
-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8.1%로 전월(7.8%)대비 0.3%p 증가하였으며 도·소매업종은 36.7%로 전월(36.5%)대비 0.2%p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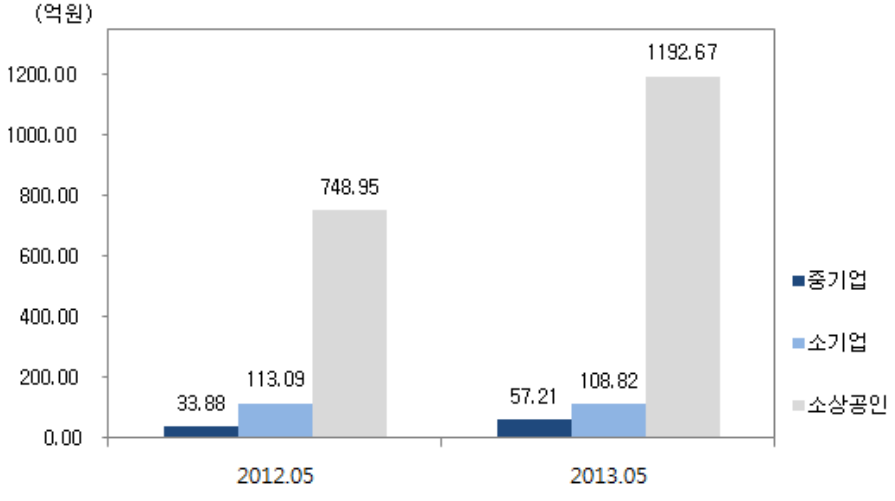
■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

-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7.8%로 전월대비 4.2%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95.6%로 전월대비 1.8%p 증가
-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.0%로 전월대비 2.0%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3.2%로 전월대비 0.7%p 감소
-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4.2%로 전월대비 2.2%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1.2%로 전월대비 1.1%p 감소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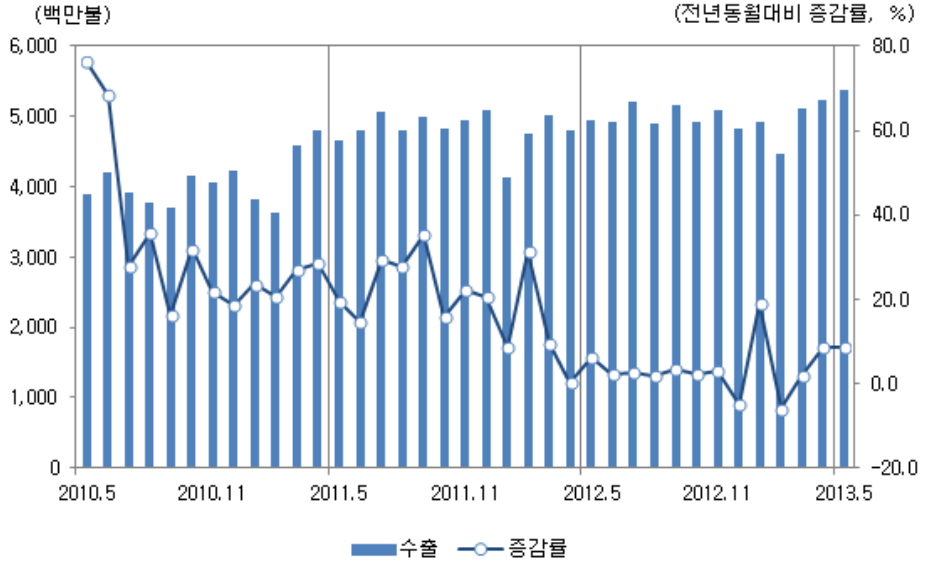
| 수·출·입·동·향 |

■ 서울의 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서울의 수출은 53.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8.5% 증가하였고 수입은 100.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.7% 증가
- 전국의 수출은 483.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3.1% 증가하였고 수입은 424.4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4.6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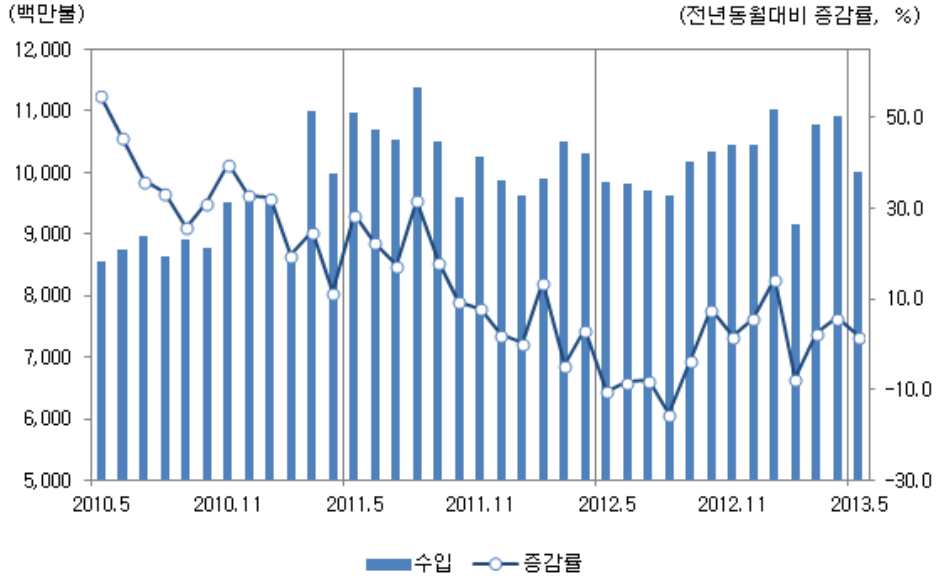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5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, 수입 1순위는 반도체

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, 자동차부품 542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반도체, 편직물, 합성수지 등 순
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, 반도체가 865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석유제품, 컴퓨터, 자동차, 의류 등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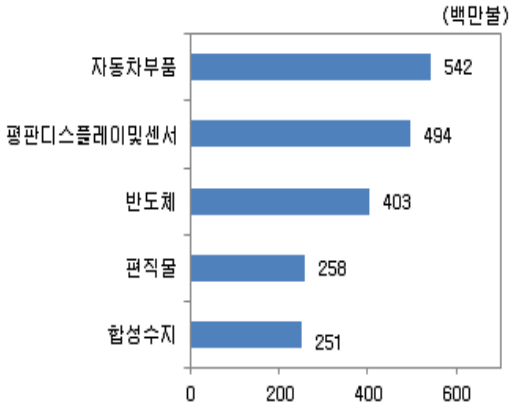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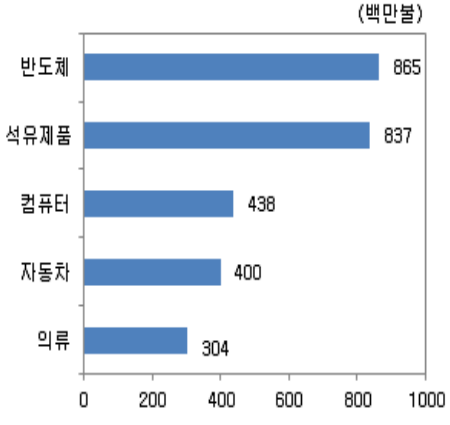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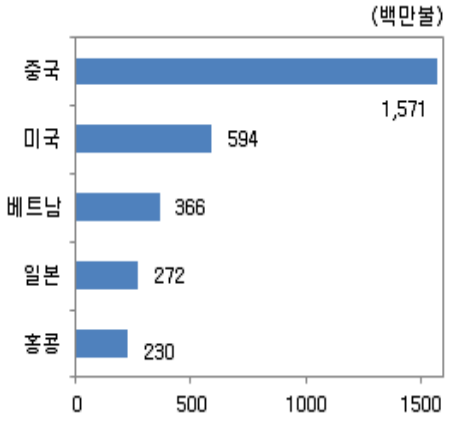
` 자료 :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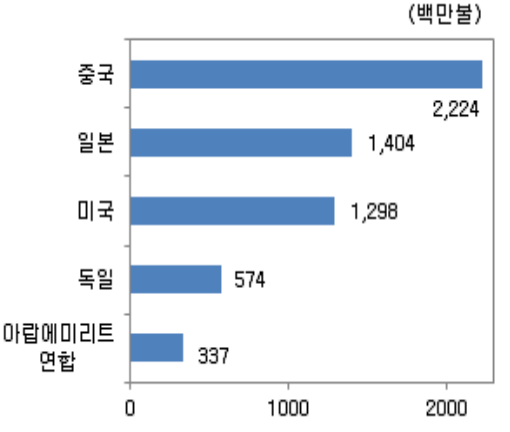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〈그림〉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■ 서울의 5월 수출·입국 1순위는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5.9% 증가한 1,571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, 베트남, 일본, 홍콩 순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.3% 감소한 2,224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, 미국, 독일, 아랍에미리트 연합 순




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〈그림〉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